

‘전자화폐연구회’ 발족, 회장에 허신교수

우리협회는 지난 10월 15일 새로운 정보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전자화폐연구회”를 결성했다.

이날 발족 모임에는 정보통신업계와 신용카드 업계, 금융기관, 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부, 전산원 등에서 2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장으로 허신 한양대 교수를 선임했다.

아울러 연구회내에 워킹그룹을 구성했는데 법제도 분과, 기술(표준) 분과, 조사연구분과를 두기로 했다.

연구방향 및 활동의 기본방향으로는 △ 전자화폐 도입의 환경정비 △ 국내의 현황 및 조사연구 △ 시범 프로젝트 개발 △ 국제협력 방안강구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보고서 발간, 대정부 건의, 관련 세미나 개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또 향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예산조달 방안과 회의개최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자화폐는 전자상거래(EC)의 시대를 맞이하여 화폐를 디지털 형태의 ‘전자정보’로 바꾸어 사용, 사회적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96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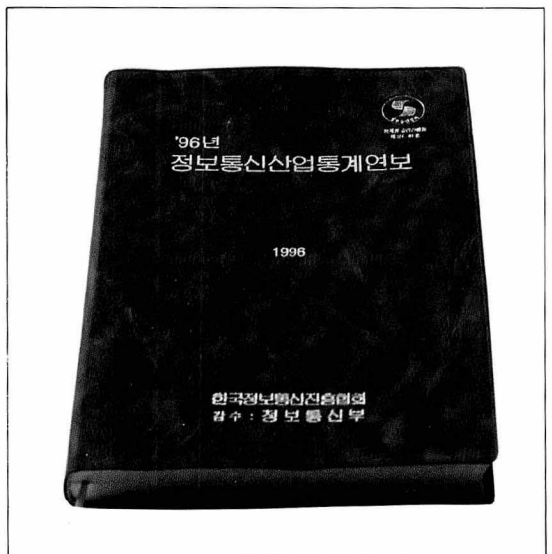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국내 정보통신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96년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를 10월 17일 발간했다.

모두 6절 520페이지로 구성돼 있는 이 연보는 TTA·KO-0069(한국통신기술협회 잠정표준)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지원으로 나누어진 대분류 아래 6단계로 세밀하게 소분류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각각의 조사통계치가 수록돼 있다.

이 통계연보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체 조사가 아닌 서비스 및 제조업에 관한 상품분류에 의한 사업체 조사라는 점이 특징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 만큼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별 통계도 수록돼 있다.

조사대상사업체수는 모두 7,270이며 실사 또는 보조자료 회수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조사는 우리협회가 통계청으로부터 지난 5월 8일에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의 작성승인(승인번호 37401)을 받아 실시했고, 발간된 연보는 통계청 승인 간행물(제374-01호)로 승인 받았다.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업무편람」 발간

우리협회는 10월에 전기통신기자재 제작 및 수입 업체의 효율적인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96년도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업무편람은 700쪽 분량으로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제도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절차 △ 형식승인 심의회 및 지정시험기관 △ 기술기준해설 △ 형식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이 수록돼 있다.

정가 40,000원에 보급하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업무편람」의 판매는 도서출판 진한도서(전화·319-3535)에서 담당한다.

멀티미디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우리협회내 멀티미디어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협의회 위원장인 김건중 삼성전자 상무이사를 비롯 운영위원 21명이 모인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인터넷 자격시험” 추진현황 보고와 DAVIC분과 추진현황 보고, 멀티미디어산업 현황조사 경과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가전 융합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고 멀티미디어협의회내에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분과 추가구성에 합의하였다.

한국EC협의회 제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우리협회내 한국EC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손 완수 위원장(KTNET상무)를 비롯, 운영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EC협의회 '96년 제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EDI/EC 구축에 관한 사용자 세미나 개최 및 EDI 활용을 위한 망간 연동 토론회 등의 후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차기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협의회 활성화 방안 검토가 있었다.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자간 이해조정에

중점 △협의회체제를 법제도개선, 기술, 국제협력, 보급확산분과로 개편 △EDI사용자에 대한 교육기관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위성/무선통신 사업위 법·제도분과위원회 회의

우리협회 위성통신/무선데이터통신 사업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주)디지털 조선일보 한 창민 팀장외 12명이 모인 가운데 위성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요 및 국내·외 위성통신사업 현황과 국내 위성통신 사업의 문제점 및 국내 위성통신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위성통신 사업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에 대한 설명 및 위성통신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DAVIC 분과 운영팀 세미나프로그램 회의

우리 협회내 DAVIC 분과 운영팀에서는 지난 10월 11일에 한국전산원의 송 관호 본부장 등 각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DAVIC 분과운영팀 세미나 프로그램 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AVIC 스펙 체계 및 WG 구성과 DAVIC 홈페이지 구성현황 보고가 있었고, '96년 11월 15일에 개최될 예정된 제 1차 DAVIC분과 기술세미나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그리고 오는 12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DAVIC 국제회의 참가와 WG 활성화 방안 및 기타 운영팀 관련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부가통신사업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우리 협회내의 부가통신사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중앙일보사 김 홍선 부장외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위원회 사업계획 설명과 부가통신사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014XY 및 공전접속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건의서를 작성,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